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8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월 28일(수) 오후 2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8. 27.(화) 17:00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심진수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황인택 사무관(044-203-5374)
	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(044-201-7380)		박판규 사무관(044-201-7386)

태양광 폐패널 재사용 · 재활용 확대 추진

- 산업부-환경부-태양광산업협회,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 · 보관 체계 구축,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기반 마련 후,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EPR 제도 시행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, 환경부(장관 조명래), 한국태양광산업협회(회장 이완근)은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(서울 타임스퀘어) 호텔에서 '태양광 패널(모듈)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.

* 업무협약 서명자 : 산업통상자원부(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), 환경부(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), 태양광산업협회(이완근 회장)

○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는 생산자(제조·수입자)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, 현재는 냉장고, 세탁기,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.

□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(20~25년)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.

* 폐패널 발생량 전망(톤) : ('17)17 → ('20)191 → ('23)9,665
(출처 :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)

○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, 알루미늄, 실리콘,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,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.

□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업부, 환경부 및 태양광 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·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로,

○ 정부와 업계는 '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·보관 체계 구축,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, '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, 생산자는 수거,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.

○ 아울러,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,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.

* 현재 생산(수입)자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약 17원/kg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중

□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"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"으로 기대한다고 하며,

○ "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,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“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 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”라면서,

○ “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, 알루미늄, 실리콘,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은 “태양광이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다”고 밝히고,

○ ”친환경,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“고 의지를 보였다.

OPEN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판규 사무관(☎044-201-7386), 산업통상자원부 황인택 사무관(☎044-203-53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업무협약 행사 개요

□ 업무협약식 개요

○ **(목적)**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

○ **(일시/장소)** 8.28(수) 14:00 /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

○ **(체결기관)** 환경부, 산업부, 태양광산업협회

○ **(주요내용)** 폐패널 회수·재활용 운영협의체 구성 및 실증사업 추진

- (‘19년) 발생량 통계 조사, 회수·보관체계 구축, 재사용 인증체계 마련
- (‘20~21년) 폐패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구축
- (‘22년) 회수·재사용·재활용체계 시범운영, 관련 제도정비 완료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 표		세 부 내 용	비 고
14:00～14:30	(‘30)		
14:00～14:15	*(‘15)*	티타임	3번 연회장(4층)
14:15～14:17	*(‘2)*	개회 및 참석자 소개	환경부 (4번 연회장, 4층)
14:17～14:20	*(‘3)*	협약 배경 및 경과보고	
14:20～14:30	*(‘10)*	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	참석자 전원

붙임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

* 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(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)

□ **(의의)** 포장재·제품 **생산자**(제조·수입업체)**에게** 포장재·제품에서 발생하는 **폐기물**(폐전자제품 등)을 **회수하여 재활용 의무**를 부여하는 제도

※ **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**할 수 있도록 배출자(소비자)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(**PPP**: Polluters Pay Principle)을 **생산자로 확대**(Extended)

□ **(대상품목) 총 43개 품목대상**(포장재 4개 품목*, 제품 39개 품목**)

* (포장재) 합성수지포장재(PET병 등), 금속캔, 유리병, 종이팩 등 4개 품목

** (제품) 타이어, 형광등, 전지, 전자제품(냉장고·세탁기 등) 등 39개 품목

□ **(운영체계)**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**생산자가** 회수·재활용에 소요되는 **비용**(분담금)을 부담하고, 이를 **선별업체·재활용업체**에 **지원금**으로 제공

○ (환경부) 재활용 실적·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**재활용 의무율**('18년 기준, 22~83%) 부여

○ (생산자)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**공제조합을 설립**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**분담금*을 납부**

* '17년 기준 분담금 총액은 1,914억원(포장재 1,644억원, 제품 495억원)

○ (공제조합)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**재활용지원금 배분·지급**

※ 분담금·지원금 단가는 생산자(제조업체)·재활용업체·공제조합 등으로 구성된 '공동운영위원회'에서 심의하여 결정

< EPR 운영체계 >

